

Issue Comment

2025. 6. 16

엔터테인먼트

5월 음반 수출 동향

● 엔터/레저

Analyst 김민영

02. 6454-4884
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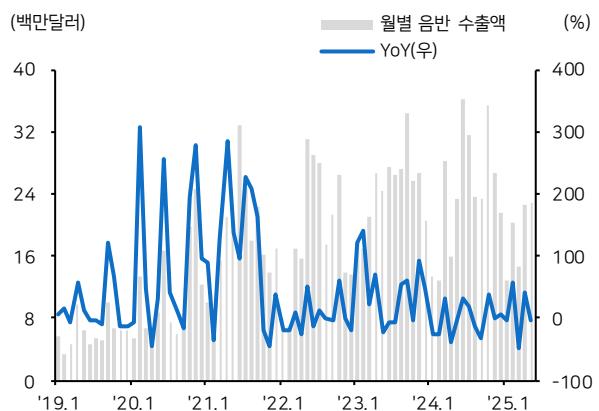
5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- 전체: 2,287만달러 (-2.2% yy, +1.0% mm)
 - 미국: 611만달러 (+28.9% yy, +192.0% mm)
 - 일본: 826만달러 (+9.8% yy, -29.3% mm)
 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: 466만 달러 (-32.9% yy, -24.3% mm)
 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: 45만 달러 (-41.4% yy, -6.2% mm)
 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: 209만 달러 (-11.3% yy, +60.1% mm)
- 국가 비중: 일본 36.1%, 미국 26.7%, 중국 9.4%

수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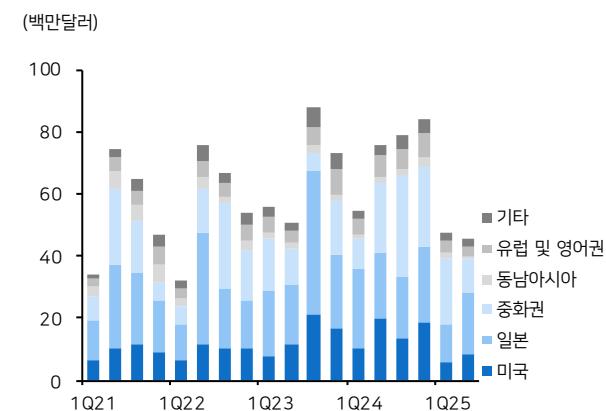
- 5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2,287만 달러(-2.2% YoY)를 기록. 5월에는 BTS 진, 세븐틴, 보이넥스트도어, 라이즈, 킥플립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고연차 아티스트 및 고성장세를 실현 중인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이 집중
- 5월 미국(+28.9% YoY, +192.0% MoM), 유럽 및 영어권(-11.3% YoY, +60.1% MoM)의 음반 수출액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성장.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컴백 및 대규모 월드투어 일정이 다수 진행된 영향일 가능성
- 6~7월에도 엔하이픈, 스트레이키즈(JP), 에스파, 트와이스, NCT DREAM 등 주요 IP들의 컴백 예정. BTS 완전체 전역 및 블랙핑크 월드투어,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재개/지속됨에 따라 음반 수출액 성장 지속될 전망

그림1 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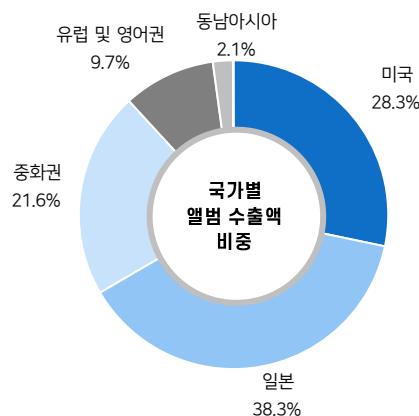
그림2 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



주: 2Q25는 4~5월 누적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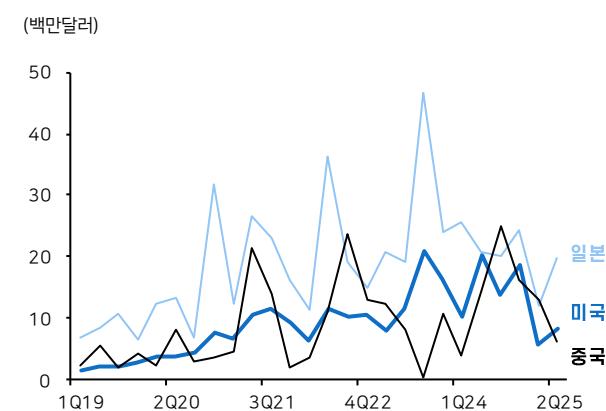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5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

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



주: 2Q25는 4~5월 누적 수출액
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